

2020년 7월 10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코로나 우려 확산 속 온라인 관련 기업 반등 무디스, 온라인 식품 매출 2020~21년 35~40% 급증

미 증시 특징: 온라인 기반 기업 반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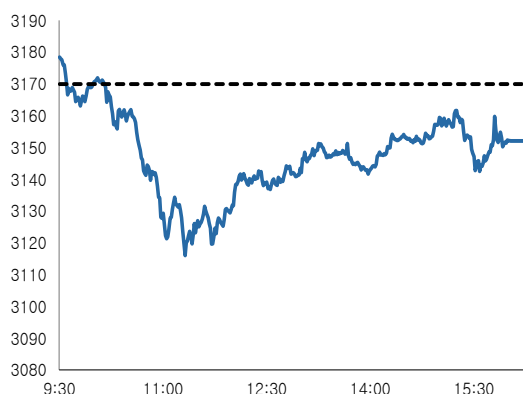
미 증시는 고용지표 호전에도 불구하고 개선 속도가 느리고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하자 기업실적 둔화 우려로 다우가 장중 2% 넘게 하락. 특히 파우치 소장이 코로나 재 확산하는 주 정부는 재 봉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낙폭 확대 요인. 그러나, 무디스가 코로나가 온라인 판매를 촉발했다고 언급하자 관련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며 나스닥은 상승(다우 -1.39%, 나스닥 +0.53%, S&P500 -0.56%, 러셀 2000 -2.00%)

미 증시는 장중 다우가 2% 넘게 급락하는 등 변동성 확대. 하락 요인은 코로나 재 확산으로 개별 기업들의 실적 부진이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이 부담. 특히 파우치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최근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일부 주의 경우 다시 경제 섯다운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라고 주장하자 낙폭 확대. 이번주 하루 간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 주 대비 20.3% 증가하는 등 급증세를 이어가 응급실이 포화 상태를 이어가는 지역이 많아지고 있음. 그러자 파우치 소장이 이를 개선 시키기 위해 재 봉쇄를 언급 한 것.

한편, WHO(세계 보건기구) 또한 “세계 많은 국가들에서 코로나가 통제되지 않고 있으며 더 악화되고 있다” 라고 발표 하는 등 우려를 표명. 이런 가운데 일부 투자회사에서 항공을 비롯한 코로나 피해 업종의 실적 둔화가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해 관련 기업들의 낙폭이 컸으며 오늘 장중 미 증시 하락 요인

그런 가운데 무디스가 코로나가 온라인 음식 쇼핑 열풍을 촉발하고 있어 온라인 관련 기업의 관련 매출이 기록적인 수준을 영위할 것이라고 발표. 특히 무디스는 2020~21 년에 온라인 식품 판매가 35~40% 성장을 할 것이며 2020 년 영업이익 증가율이 20%에 도달할 것 이라고 주장. 이 소식으로 관련 기업들이 반등하며 개별 기술주의 강세를 이끔. 더불어 무늬신 미 재무장관이 이달 말 코로나 구호 법안을 만들 것이라고 발표한 점도 긍정적

S&P500 일종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종락률(%)	Close	D-1	지수종락률(%)	Close	D-1
KOSPI	2,167.90	+0.42	홍콩항셍	26,210.16	+0.31
KOSDAQ	772.90	+0.91	영국	6,049.62	-1.73
DOW	25,706.09	-1.39	독일	12,489.46	-0.04
NASDAQ	10,547.75	+0.53	프랑스	4,921.01	-1.21
S&P 500	3,152.05	-0.56	스페인	7,236.90	-1.22
상하이종합	3,450.59	+1.39	그리스	636.84	-0.66
일본	22,529.29	+0.40	이탈리아	19,505.95	-1.98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사,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온라인 업종 강세 Vs. 금융, 여행, 항공 부진

F5네트웍(+7.94%)은 소프트웨어 부문 실적 기대로, 시스코시스템즈(+1.94%)도 견실한 수익성장 기대로 투자자의 관심이 상향 되자 상승했다. 월마트(+2.66%)는 건강보험 판매 부문 강화를 위해 채용을 확대하자 강세를 보였다. 아마존(+3.29%)과의 경쟁이 본격화 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었으나 동반 상승 했다. 특히 무디스가 온라인 식료품 판매 급증을 할 것이라는 소식을 언급한 점도 긍정적이었다. 유럽 최대 기술주인 SAP(+4.58%)가 클라우드 매출이 21% 급증 했고 코로나로부터 벗어나고 있다고 발표하자 오라클(+1.54%), NVIDIA(+2.87%), AMD(+7.16%) 등 관련 기업들이 강세를 보였다. 코스트코(+2.91%)는 양호한 6월 판매량 소식이 전해지자 상승했다. 모더나(+5.51%)는 7월 말 3상 임상 시작 가능성이 부각되자 강세를 보였다.

반면, JPM(-2.17%), BOA(-1.43%) 등 금융주는 국채금리 하락과 경기 침체 지속 우려가 부각되자 하락했다. 키뱅크(-4.91%) 등 지역은행들의 낙폭이 더 컸다. 엑손모빌(-4.13%), 코노코필립스(-6.55%) 등 에너지 업종과 GM(-6.09%), 포드(-4.11%) 등 자동차 업종, 델타항공(-5.04%), 아메리칸 에어라인(-6.76%)을 비롯한 보잉(-3.78%) 등 항공 업종은 코로나의 지속적인 확산 여파로 실적 부담이 부각되며 하락했다. 약국체인 점인 월그린부츠(-7.76%)는 부진한 실적 발표로 급락했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5.23%	대형 가치주 ETF(IVE)	-1.57%
에너지섹터 ETF(OIH)	-6.21%	중형 가치주 ETF(IWS)	-1.73%
소매업체 ETF(XRT)	-1.87%	소형 가치주 ETF(IWN)	-2.96%
금융섹터 ETF(XLF)	-2.11%	대형 성장주 ETF(VUG)	+0.44%
기술섹터 ETF(XLK)	+0.36%	중형 성장주 ETF(IWP)	+0.38%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1.67%	소형 성장주 ETF(IWO)	-1.00%
인터넷업체 ETF(FDN)	+0.96%	배당주 ETF(DVY)	-2.69%
리츠업체 ETF(XLRE)	-0.31%	신흥국 고배당 ETF(DEM)	-1.02%
주택건설업체 ETF(XHB)	-2.60%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35%
바이오섹터 ETF(IBB)	-0.17%	미국 국채 ETF(IEF)	+0.34%
헬스케어 ETF(XLV)	-0.79%	하이일드 ETF(JNK)	-0.31%
곡물 ETF(DBA)	+0.26%	물가연동채 ETF(TIP)	+0.26%
반도체 ETF(SMH)	+1.74%	Long/short ETF(BTAL)	+2.53%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261.81	-4.86%	-6.60%	-18.64%
소재	358.61	-0.93%	+0.87%	-2.24%
산업재	567.38	-2.14%	-1.87%	-7.22%
경기소비재	1,114.73	+0.77%	+4.19%	+5.04%
필수소비재	607.85	-0.75%	+1.03%	-1.42%
헬스케어	1,176.56	-0.82%	+0.04%	-1.45%
금융	376.87	-2.15%	-1.21%	-9.56%
IT	1,901.82	+0.38%	+3.25%	+4.02%
커뮤니케이션	188.70	-0.04%	+2.61%	+0.84%
유틸리티	288.19	-1.31%	-1.82%	-6.71%
부동산	216.96	-0.34%	-2.25%	-4.55%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종목 쏠림 현상 나올 듯

MSCI 한국 지수 ETF는 0.61% 하락했고 MSCI 신흥국 지수 ETF는 보합을 기록했다.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96.80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보합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증시는 코로나 확산으로 개별 기업들의 실적 부진 가능성이 높아지자 장중 다우가 2%, 나스닥과 S&P500이 1% 넘게 하락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여전히 온라인 매출 증가에 기대 실적 개선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 반등에 성공하며 혼조세로 마감했다. 대체로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장중 실적 개선 기업들에 대한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한국 증시에서도 실적에 기반한 쏠림이 나올 수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고용불안 지속에 따른 경기 침체 장기화 가능성이 높아져 외국인 수급에는 여전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달러, 엔화가 강세를 보였고 국제유가가 또한 코로나로 인해 3% 넘게 약세를 보이는 등 위험자산 회피 현상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다만,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7월 말 전에 코로나 구호 법안을 통과 시킬 것이라고 주장한 점, 오후 들어 기술주 특히 온라인 관련 기업들과 클라우드 관련 기업들이 강세를 보인 점 등은 한국 증시에 관련 기업들의 강세를 예상케 한다.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 매물 출회 가능성이 높아 종목 차별화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고용지표 개선

미국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지난주(141.3 만 건)이나 예상(137.5 만건)을 하회한 131.4 만 건을 기록했다. 4 주 평균도 지난주 150 만건에서 줄어든 143.7 만 건을 기록해 안정을 보였다. 다만, 여전히 100 만 건 이상의 실업급여 신청자가 이어지고 있어 고용 개선이 예상보다 느려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는 높아졌다.

5 월 미국 도매 재고는 전월 대비 1.25 감소해 지난달(mom +0.2%) 보다는 감소했으나 예상과는 부합된 결과로 발표되었다. 판매대 재고 비율은 1.53 으로 전년(1.34) 보다는 증가했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안전자산 선호심리 확대

국제유가는 미국의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되자 수요 부진 우려가 높아지며 하락했다. 여기에 리비아가 그동안의 수출 중단을 해제하고 공급을 재개 한다고 발표한 점도 부담이었다. 한편, 15 일 OPEC+ 주요국들의 산유량 감산 점검 회의를 여는 데 7월 말 이후 지속하던 감산 규모를 축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관련 내용이 나올지에 대한 우려 또한 높아진 점도 부담이었다.

달러화는 최근 약세를 뒤로 하고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를 보였다. 특히 미국의 코로나 확산이 지속되고 일부 주 정부에서 섰다운 가능성이 높아진 점 등은 안전자산 선호심리를 높였다. 한편, 실적 시즌을 앞두고 기업들의 부진한 실적 우려가 확산되고 있어 미 증시 부진 가능성이 높아진 점도 안전자산 선호심리를 높였다. 엔화도 안전자산 선호심리로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

국채금리는 양호한 고용지표 결과에도 불구하고 미 주식시장 부진 영향으로 하락했다. 특히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 속 파우치 소장이 일부 주 정부 섰다운 권고도 하락 요인 중 하나 였다. 여기에 30 년물 국채입찰에서 응찰률이 12 개월 평균(2.32 배)을 상회한 2.50 배, 간접입찰도 12 개월 평균(61.7%)을 상회한 72.0%를 기록하는 등 채권 수요가 증가하자 장기금리의 하락폭이 컸다. 단기물의 경우 고용지표 개선으로 낙폭은 제한되었다.

금은 코로나 확산 불구 하락했다. 최근 1,800 달러를 상회하자 상승에 따른 차익 매물 출회와 달러 강세가 하락 요인으로 추정된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달러 강세 및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 지속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기 부양정책 기대속 강세를 보였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39.62	-3.13	-0.50	Dollar Index	96.800	+0.39	-0.53
브렌트유	42.35	-2.17	-1.83	EUR/USD	1.1284	-0.41	+0.40
금	1,803.80	-0.92	+1.34	USD/JPY	107.19	-0.07	-0.29
은	18.962	-1.04	+4.08	GBP/USD	1.2605	-0.04	+1.10
알루미늄	1,664.00	-0.06	+2.65	USD/CHF	0.9404	+0.22	-0.52
전기동	6,300.00	+1.09	+3.74	AUD/USD	0.6962	-0.29	+0.55
아연	2,156.00	+1.17	+5.45	USD/CAD	1.3588	+0.56	+0.18
옥수수	348.75	+0.72	-0.50	USD/BRL	5.341	+0.03	-0.39
밀	525.00	+1.65	+5.26	USD/CNH	6.9965	-0.03	-1.01
대두	901.50	+0.47	+0.28	USD/KRW	1195.50	0.00	-0.38
커피	98.75	-1.25	-5.05	USD/KRW NDF 1M	1196.80	+0.38	-0.20

10 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 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0.610	-5.41	-5.90	스페인	0.404	-0.20	-4.40
한국	1.397	+2.20	+2.20	포르투갈	0.412	+1.00	-2.30
일본	0.031	-0.30	-0.50	그리스	1.090	-0.80	-8.00
독일	-0.463	-2.30	-3.50	이탈리아	1.223	+2.30	+1.40